

## 고정된 언어에 붙들리지 않는 대화의 가능성

—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전화’를 중심으로

이 행 미\*

### [초 록]

이 글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전화’가 단순히 소재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언어에 대한 작가의 치열한 탐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전화를 매개한 의사소통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상호 보증과 합의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청준이 규정한 ‘관계적 언어’의 속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또한 전화는 발화 내용을 통해 맥락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상호간 주고받는 언어가 대화의 의미를 이끄는 데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발신자가 거짓을 말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화 자체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위험을 안고 있다. 한편 전화는 대화 상대 간의 내밀한 소통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강하게 형성하게 하는 매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화의 여러 속성이 소설 속에서 재현되는 양상을 이청준의 언어의식과 나란히 놓고 살펴보고자 했다.

이청준 소설에서 전화는 주로 수신자의 정서적 반응과 행위와 관련

---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제어: 이청준, 전화, 언어, 관계적 언어, 존재적 언어, 발신자, 수신자, 소통  
Lee Cheong-joon, Telephone, Language, Relational Language, Existential  
Language, the Caller/sender, the Recipient, Communication

하여 의미화된다. 서사 내 전화가 형상화되는 방식에 대한 천착은 ‘관계적 언어’와 ‘존재적 언어’의 관련 양상에 대한 작가의 탐구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 「떠도는 말들」(1973)은 ‘관계적 언어’의 기능을 반성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소설이다. 상대방의 언어에 의존하여 그 실재를 추단해 버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전화를 매개로 한 소통의 절대적 한계를 보여주면서 ‘존재적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신자가 발신자의 언어를 해석하고 현실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때 수신자는 발신자의 언어를 능동적으로 이해해 나가는 행위적 면모를 보임으로써 두 언어 질서의 관계를 성찰적으로 모색하는 주체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반면 「여름의 추상」(1982)은 ‘관계적 언어’의 전적인 불신과 ‘존재적 언어’에 대한 경사를 보여준다. 주로 남도의 말과 소리로 나타났던 충만한 의미를 전달하는 말이 문자를 통한 편지 쓰기 행위를 통해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문자를 통해 그 이면을 읽어달라는 화자의 목소리는 규범적 언어를 넘어선 자유로운 소통을 회구하는 작가의 목소리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전화로 대변되는 ‘관계적 언어’가 전적으로 부정되어지는 상황은 이항적 대립 구도의 한 축인 ‘존재적 언어’가 또 하나의 폐쇄적인 소통회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관계적 언어’에 대한 작가의 과도한 불신은 서울이라는 도회의 삶 속에서 두 언어 질서가 화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투사된 것이기도 하다.

## 1. 1960년대 전화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관심

1969년 신문에는 잘못 걸려온 전화가 너무 많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는 한탄이 담긴 칼럼이 실린다. 하지만 이 글의 필자는 전화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 걸려오는 친척의 반가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서 전화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표하기도 한다.<sup>1)</sup> 이렇듯 전화는 발신자가 누

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벨 소리를 울려대면서 일상에 투입하는 불청객과 같지만 사적인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당대 전화는 보급의 현황만을 보았을 때는 공적 차원에서의 활용이 더욱 컸지만, 자본을 소유한 일부 소수에게 퍼스널 미디어로서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사생활과 친교의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떨치기 시작했다.<sup>2)</sup>

전화는 근대 초기 한국 사회에 등장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누구나 소유할 수 없는 진기한 것이었다. 전화를 집에 놓기 위해서는 사치품과 비등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했고, 전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사정은 경제력이 있어도 전화를 가질 수 없게 했다.<sup>3)</sup> 이러한 사정 아래 전화는 당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사소통의 매개로서 소유하고 싶은 대표적인 기기(利器)였다. 의사소통으로서의 기능은 공적 영역에서부터 사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여전히 낮설고 희소한 문물인 전화는 정형화되지 않은 소통 방식을 낳았고, 대면적인 대화와는 다른 관계성을 형성했다. 전화에 대한 수요는 도

- 
- 1) 강준만은 이 칼럼(박대인(1969. 12. 14.), 「일사일언: 전화 노이로제」, 『조선일보』)을 비롯한 여러 자료를 통해 당대 전화오점이 과도하게 이루었던 현상을 지적하면서, 수요에 미치지 못한 공급에 의해 전화 매매 및 배정과 관련된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불편함에서 전화의 특권적 지위의 막강함을 읽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강준만(2009), 『전화의 역사: 전화로 읽는 한국 문화사』, 인물과사상사, pp. 142-144).
  - 2) 사생활과 사적 네트워크로서의 전화는 산업의 일환으로 확산된 것인 만큼 자본을 소유한 이들에게만 허용됐던 것이다(요시미 순아(2005), 송태욱 역, 『소리의 자본주의』, 이매진, pp. 177-180).
  - 3) 1968년 한국의 전화보급률은 1.16%였는데, 이때 전화 가격은 한 농가가 일 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고액으로 당시 전화는 가지고 싶어도 쉽게 소유할 수 없는 고급품이었다. 하지만 전화는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것임에도 가정의 필수품과 같이 받아들여졌다. “일반이 흔히 가질 수 없는 고급가정필수품”이라는 표현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급화의 물결 (9) 전화」, 『매일경제』, 1968. 4. 9; 「달기 쉬워진 전화, 9월부터 새 통신법 적용」, 『매일경제』, 1970. 8. 28).

회의 생활에서 점차 많아졌고, 공급이 수요에 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화는 보편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기기임에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나갔다.<sup>4)</sup>

전화가 가져온 사회문화적 변화는 당대 소설가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김승옥의 『보통 여자』(『주간여성』, 1969. 7. 9.~12. 3)에서 전화는 도시에서의 삶과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있는 풍경을 여실히 보여주는 소재로 등장한다. 이 소설에서 전화는 사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비밀을 무심코 폭로하는 상황을 이끌어 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또한 인물의 감정과 욕망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집요하게 전화를 거는 인물, 자신의 평소 말투를 숨기고 타인을 모방하는 인물, 전화에 온 신경을 다 쏟으며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증폭시켜나가는 인물 등이 그 예이다. 흥미로운 점은 전화가 인물의 성격과 심리 상태를 단순히 반영하는 수단이 아니라, 전화가 그 인물의 욕망을 꼬집어내거나 점화시키거나, 혹은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적극적인 매개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은 이성 간의 만남을 전화 오접(誤接)을 떠올리는 사건으로 서사화하고 있는 장면이다. 전화가 오접되는 현상은 소설이 발표되었던 시기 한국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났던 일로, 전술하였다시피 이는 신문지면을 통해서 공론화되기도 했다. 여성인물(종숙)은 과거 알던 이성의 관심을 얻기 위해 같은 시간에 계속 ‘잘못 걸려온 전화’로 위장하여 남성인물(명훈)이 근무하는 회사로 전화를 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여

4) 전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대다수의 가구가 실제로 전화를 보유하게 되는 1980년대 중반에 이른 후부터 점차 사그라졌다. 전화가 중산층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기점이 되는 때는 1985년으로, 그해 9월 말 전국의 전화대수는 700만 대를 넘었다. 1987년에는 전국 전화시설이 1000만 회선을 돌파하면서 ‘1가구 1전화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1980년대 들어 전화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더욱 구체적이고 전면적으로 바뀌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강준만(2009), pp. 170-180).

자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며 그녀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추측한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일종의 ‘장난전화’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육체적 교섭만을 탐하고 즐기는 것으로 인식된다.<sup>5)</sup> 이렇듯 전화를 통한 말은 진정성이 제거된 유희적 언어로 나타나며, 그 언어는 도시를 배경으로 한 관계성 구축의 매개로 나타난다. 한편 김승옥의 『보통 여자』에서 전화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중산층의 삶에게만 향유될 수 있는 매체로 재현된다. 소설 속 전화를 사용하는 이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들에 한해서이며, 이는 당대 전화를 매개한 사적인 의사소통의 기회가 자본에 의해 편재되었음을 보여준다.<sup>6)</sup>

전화 오접 상황의 서사화는 언어의 문제에 깊이 천착한 소설로 평가되는 이청준의 『떠도는 말들』(『세대』, 1973. 2)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김승옥의 『보통 여자』와 달리 이 소설에서 전화는 당대 도시의 삶을 재현

- 
- 5) 이는 명훈의 내면 서술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명훈은 전화가 걸려오길 신경 쓰는 자신이 “서울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드라마에 열중”(p. 22)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종숙과 자기는 “서울 사회가 줄 수 있는 사소하지만 구체적인 현실적인 재미를 적당히 즐기”(p. 31)는 부류이며, 이는 ‘서울내기’의 특징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김승옥(2004), 『보통 여자』, 『강변부인』(김승옥 소설 전집 4)), 문학동네). 이처럼 김승옥의 『보통 여자』는 도시의 삶에서 전화가 사람들의 인식과 감정의 영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와 같은 풍부한 재현은 서울이라는 도시와 전화 매체와의 관련성을 폭넓게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한편 『보통 여자』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중산층의 삶의 타락상을 부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김경연(2015), 「통속의 정치학 — 1960년대 후반 김승옥 주간지 소설 재독」, 『어문론집』 62, 중앙어문학회).
- 6) 『보통 여자』에서, 식모인 순이가 전화를 사용하는 예외적 양상은 중산층이 아닌 인물이 전화를 수용하는 양상과 그 의미를 해석하게 하는 실마리가 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순이는 주인댁 식구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는 일종의 교환원과 유사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순이는 주인 식구가 없거나 업무상의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집 식모들과 전화 통화를 한다. 이 전화는 ‘장난질’로 의미화되며, 이때 순이는 평소에 쓰던 사투리를 쓰지 않고 주인집 자제의 말투와 억양을 흉내 낸다. 이렇게 볼 때 순이의 전화는 엄밀히 따져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타인과 교환하는 의사소통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

하는 소재적 차원의 의미로 전적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두 소설은 공통적으로 전화를 매개한 의사소통에 부정적 의미를 덧씌우는 방식으로 재현되지만, 『보통 여자』가 그 부정성을 체현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서사인 반면, 「떠도는 말들」은 전화를 통한 대화를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게 되는 인물의 시선을 통해 주제의식을 전달한다. 그렇다면 「떠도는 말들」에서 전화가 부정적 의미로 전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잉여’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화를 향유하기보다는 그 ‘외부’에 있는 자들의 위치에서 소통 양상을 응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 글은 이와 같은 물음에서 출발한다. 이청준이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전개해나갔던 시기, 도시의 공적·사적 영역을 가로지르며 사람들의 생활과 인식을 바꾸어나갔던 전화에 대해 이청준은 다른 작가들과 변별되는 어떠한 문제의식을 지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2. ‘관계적 언어’의 가능성 탐구: 이청준의 언어의식과 전화

이청준 소설 세계의 주조를 이루는 것은 언어에 대한 탐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언어를 삶과 문학을 가능하게 해 주는 수단이기보다는 이를 존재하게 하는 실체로 여겼고, 집단적 언어의 공세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진실을 지키는 문제를 서사화하는 데서 문학의 의미를 찾기도 했다.<sup>7)</sup> 이청준이 작품 활동을 시작해 나갔던 시기는 정치적 억압과 소비 지향적 대중문화가 점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때로, 언어를 매개로 한

7) 언어 현실에 대한 견해를 청해 듣고자 하는 권오룡의 물음에, 이청준은 ‘집단 언어와 개인 언어’와 ‘정보 언어와 유통 언어’라는 두 측면으로 나누어 답하였다. 여기서 전자는 1980년대 초반 발표된, 작가의 언어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라 할 만한 ‘존재적 언어와 관계적 언어’와 의미상 대응을 이룬다(이청준·권오룡(1999), 「시대의 고통에서 영혼의 비상까지」(대담), 『이청준 깊이 읽기』(권오룡 편), 문학과지성사, pp. 27-35).

창작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한 세계 인식의 자유 또한 (무)의식적으로 제한될 만큼 닫힌 사회였다. 이청준의 언어 탐구의 궤적의 의미는 지배와 통제의 언어가 범람하는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철저한 반성 과정을 거쳐 다른 방식의 언어적 현실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한 작가적 태도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작가 스스로도 뚜렷한 입장을 개진했던 만큼 언어 문제를 중심에 놓고 이청준의 문학 세계를 구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sup>8)</sup>

‘언어’에 대한 이청준의 관심은 그의 전작을 통해 두루 살펴볼 수 있지만, 특히 「언어사회학 서설」(1973~1981)과 「남도사람」(1976~1981) 연작은 말과 소리에 대한 작가의 천착을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공히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이청준의 70년대는 ‘잃어버린 말’을 향한 집요한 탐구의 수련기”라 할 만하다.<sup>9)</sup> 또한 이와 같은 일련의 소설은 1980년대 초반 작가 스스로 사후적으로 규정한 바 있는 ‘존재적 언어’와 ‘관계적 언어’라는 대립적 속성을 띠면서도 상호보완적 질서를 이루어야 하는 두 언어 질서의 양상과 관계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산물이다.<sup>10)</sup>

8) 이청준 문학을 언어와의 관련성에 살펴보고 있는 연구는 총론과 작품론을 아우르며 상당한 양이 축적되어 있다. 그중 개별 작품론을 넘어 이청준의 언어 의식을 보다 전면적으로 고구하고자 한 연구로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김병익(1999), 「말의 탐구, 화해에의 변증」(『잃어버린 말을 찾아서』 해설, 1981), 김치수(1999), 「언어와 현실의 갈등」(『매잡이』 해설, 1980), 우찬제(1999), 「자유의 질서, 말의 꿈, 반성적 탐색」(『소설과 사상』 1995년 봄 수록), 이렇게 세 편의 글은 위에서 언급한 권오룡이 엮은 『이청준 깊이 읽기』에 수록되어 있는 글을 참고했다. 이청준 문학 세계 전반을 폭넓게 살펴보면서 언어 문제를 중심에 놓고 작가의 문학적 특수성을 해명하고자 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이 있다(김우영(2015), 「이청준 문학의 언어 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정현(2014),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언어’와 ‘죽음’ 의식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순미(2006), 「이청준 소설의 언어 인식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 김병익(1999), p. 234.

10) ‘존재적 언어’와 ‘관계적 언어’라는 표현은 1982년 10월에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에서 있었던 <한국문학 세미나>에서의 발제문에서 작가가

이청준에 따르면, ‘존재적 언어’는 “내면적 정신적 자율존재로서의 자족적 삶”, ‘관계적 언어’는 “개방적 사회적 의존존재로서의 관계적 삶”과 상응하는 언어질서로, 양자는 동양과 서양의 언어 사용과 삶의 태도를 대변한다. 전자는 직접적으로 발화된 표현을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상호 간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표에 부착된 기의의 공공연한 의미에 붙들리지 않으며 심지어 침묵까지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sup>11)</sup> 반면 후자는 자신의 존재와 의사를 상대방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현상적인 언어를 통한 상호 확인과 분명한 논증 과정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두 언어 질서는 기호에 얽매이지 않는 포괄적이면서도 다채로운 사유를 상상하게 한다는 점과 가시적으로 드러난 기호에 근거하여 사유와 의사를 표현한다는 상반된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이르러 문물 발달과 사회조직 분화 등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은 더 이상 정신의 내면적 질서에만 머무르기 어렵게 된다. 타자 의존적인 요소가 늘어난 상황에서 ‘관계적 언어’를 사용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고, 이청준은 두 대비되는 경향의 갈등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언어가 타락하지 않는 세계와 삶의 문제를 끈질기게 천착하는 면모를 보인다.

이청준은 관계적 언어 질서의 타율성과 획일적 공리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 지배와 억압의 언어로 변모될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라 거짓과 독단의 언어가 팽배하게 되고 결국 인간성 파괴로 나아가게 될 현상을 각별히 우려했다. 작가 스스로 언급했듯 이러한 현상을 낳을지 모를 언어질서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시도한 작품이 「언어사회학 서설」 연작이다.<sup>12)</sup> 총 다섯 편으로 이루어진 이 연작은 모두 윤지옥의 여정에 따라

---

쓰고 있는 용어이다(이청준(1985), 「존재적 언어와 관계적 언어 사이에서」, 『말없음표의 속말들』, 나남, p. 134).

11) 침묵도 하나의 화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은 소설에서 ‘말없음표’의 역할을 긍정하는 데서도 나타난다(이청준(1985), 『말없음표의 속말들』, 『말없음표의 속말들』, 나남, pp. 130-133). 이 글은 1984년에 쓰였다고 부기되어 있다.

12) 이 연작은 「떠도는 말들」, 「자서전들 쓰십시다」, 「지배와 해방」, 「가위 잠꼬대(몽

플롯이 전개되는데, 일편에 해당하는 「떠도는 말들」은 실체를 잃어버린 부유하는 기표들의 범람에 절망하는 인물의 목소리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 모색과 탐구의 여정의 시발점이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언어의 타락과 배반을 직시하게 되는 인물의 인식 변화가 ‘전화 오접’ 사건을 매개로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소설에서 수화기를 통해 전달되는 말은 결국 라디오와 신문과 같은 매스미디어의 언어의 속성과 등가를 이루는 것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다른 미디어와 달리 전화의 경우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탐색의 과정’이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화를 통한 소통이 발신자와 수신자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매체들과 변별되는 소통 구조를 띠기 때문이다.<sup>13)</sup> 즉, 전화를 매개로 전달되는 말은 타자 의존적 성향이 짙다는 점에서 ‘관계적 언어’에 속하지만,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친밀감을 토대로 내밀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리적 성격의 언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한편 이청준의 소설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 혹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인물들이 등장한다. 어떤 특정 집단으로 귀속되지 않고 균질하지 않은 내면성을 지닌 이 인물들은 전화라는 의사소통의 매개를 단일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가학성 훈련」(『신동아』, 1970. 4)에는 경제적 격차가 의사 표현과 전달의 자유를 없애버릴 정도로 억압의 굴레가 되는 현상이 그려져 있다. 이 소설에서 전화는 그와 같은 소설의 주제를 잘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로 나타난다. 전화를 소유한 주인과 그 시선 아래 눈치를 받으며 전화를 사용해야만 하는 세입자의 모습은 계층의 문제를 형상화하는 동시에 타인과의 소통이 점차 전화에 의존하게 되는 도시적 삶의 세태를 잘 보여

압박성), 「다시 태어나는 말」로 구성되었다.

13)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한 「떠도는 말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 글의 3장 참조.

준다. 이 소설의 서사적 현재는 셋방살이를 하는 현수가 주인집 안방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귀를 곤두세우고 있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이때 현수가 기다리는 두 전화는 사장과 아내에게서 걸려올 전화이다. 사장의 전용 운전수가 직업인 현수는 퇴근 뒤 지시사항을 전달받기 위해서 전화 이용이 필수적이다. 이는 공적 의사소통에서 전화사용의 증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전화의 부재가 곧 생존이 직결된 직업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아내에게 걸려올 전화는 이사 갈 집을 보러간 상황에서 그 내용을 보고하는 일이다. 이는 간단한 용건을 전달하는 일이지만, 사적 의사소통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장과 의 통화와 달리 반드시 전화로 그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나 공간을 초월하여 빨리 소식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전화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화벨 소리’를 암호로 정해 의사소통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전화를 사적인 의사소통의 매체로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과 욕망이 널리 확산된 당대 풍경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학성 혼련」은 도시에서 전화를 소유하지 못하는 처지가 곧 대화의 주제로 설 자리를 축소하거나 박탈해 버릴지 모른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조율사』(1972)에서 전화의 소유는 소비 지향적 대중문화 또는 도시민적 생활 감각에 편승하여 내면의 부조화를 야기하거나 내적 진실을 배반하게 하는 계기로 나타난다.<sup>14)</sup>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평론가인 지훈이다. 지훈은 애인과의 대화에서 항상 ‘자기 부재’를 느끼는데, 이는 중산층인 그녀의 생활세계와 자신의 세계에 접점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훈은 그녀와 헤어짐으로써 자신의 진실과 문학을 지키고자 하지만, 다시 그 여자를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집을 나가겠다고

14) 『조율사』에서 전화를 집에 놓는 문제는 송 교수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최근 새로 전화를 설치한 송교수는 “한국적 상식의 학자 양식과 전화기 사이에서 상당히 감정의 조화를 잃고 있는 것”(p. 63)처럼 보이는 인물로 형상화된다(이청준(2011), 『조율사 (전집 8)』, 문학과지성사).

선언한다. 가족의 만류로 집을 나가지 못한 지훈은 그 대신에 전화라도 집에 놓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현 수화기와 전깃줄을 방에 가져다 놓는다. 하지만 다음날 지훈은 자신의 방에 둔 전화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서 허겁지겁 치워버린다. 지훈의 행동은 양자의 팽팽한 긴장을 견디지 못한 채 두 세계가 그의 내면을 교대로 지배하는 분열된 모습으로 의미화 된다. 이처럼 작중 인물은 전화로 환기되는 부정적 의미를 알면서도 이를 집에 놓고자 하는 열망을 버리지 못하는데, 거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와 같은 삶과 이를 누리는 대상과 소통의 끈이 이어져 있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때, 전화를 매개한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과 초기 소설부터 지속되어 온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만나 「떠도는 말들」에 이르러 ‘전화’는 이창준의 언어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제재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전화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참여 정도와 양상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다양한 관계 형성을 낳을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매체다.<sup>15)</sup> 그럼에도 미디어로서의 전화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신문 등에 대한 관심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다.<sup>16)</sup> 1992년 일본에서 출간된 저서 『전화의 발견』은 이와 같

15) 매클루언은 전화가 오직 빈약한 청각 이미지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감각과 기능의 ‘완전한 참여’를 요구한다고 본 바 있다(마셜 매클루언(2011), 김상호 역,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p. 60, pp. 451-464).

16) 이 글은 이창준의 언어인식과 전화의 관련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문학과 전화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련의 선행 연구들이 보여준 문제의식의 연속선상에 놓이기도 한다. 특히 최근 서희원은 염상섭의 「전화」와 「사랑과 죄」를 통해 전화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낸, 도시의 삶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성을 탐구하고 있어 흥미롭다(서희원(2018), 「부재하는 신체, 존재하는 목소리: 전화는 어떻게 소설의 서사를 변화시켰는가 — 염상섭의 「전화」, 「사랑과 죄」를 중심으로, 『동악어 문학』 75, 동악어문학회). 이 글에서 서희원은 한국문학과 전화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그밖에도 필자가 살펴본 범위 안에서 전화와 문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안숙원(1995), 「전화 텍스트론: 박완서의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을 대상으로, 『국어국문학』 115, 국어국문학회; 오연

은 편향된 연구가 이루어져온 핵심적 원인으로 전화가 특히 “일상에 지극히 당연하게 용건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자명한 미디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역사, 사회, 문화, 이렇게 세 차원이 중층적으로 얽혀져 있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이 연구는 본고의 논의에 주요한 참조점이 된다.<sup>17)</sup>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누구인지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상태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여보세요’라는 말에서부터 시작하여 상대방이 누구인지 묻고 확인하는 탐색 과정이 본격적

옥(2013), 「현대소설에 나타난 통신매체 인식 연구 — <고향> · <전화(電話)>에 나타난 전화매체를 중심으로 —」, 『한국문학논총』 65, 한국문화회; 이경훈(1999), 「네트워크와 프리미엄: 영상섭의 「전화」에 대해」, 『어떤 백년, 즐거운 신생』, 하늘연못, pp. 243-263; 이승하 · 이충만(2011), 「한국 현대 소설에 나타난 전화를 통한 일상성 연구 —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이 중 이승하와 이충만의 논의는 이 글의 분석대상 시기와 일정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화 보급 정도와 사람들의 전화에 대한 인식을 흡사 정비례한 것으로 전제하고서 논의를 펼치고 있으며, 그렇기에 90년대에 이르러서 사적 의사소통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소설적 형상화 차원에서도 전화가 단편적으로 재현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서회원의 논문에서 알 수 있듯 식민지 시대에도 전화는 일상에서의 관계 형성의 큰 변화를 야기했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이청준의 소설 및 김승옥의 『보통 여자』에서 발견되는 양상들 또한 이와 같은 견해의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17) 1992년 일본에서 출간된 『전화의 발견』은 요시미 순야, 와카바야시 미키오, 미즈코시 신의 공동 연구의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어판 서문에 보면, 이 책은 “일본 최초의 전화에 대한 미디어론적 사회학적인 연구”로서 기술이나 지역정보화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가 미디어의 “깊은 곳에서 인간의 심성과 사회의 구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간과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미디어로서의 전화의 주요한 특징을 다음과 같은 세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이는 이 책의 주요한 논점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목소리라는 신체’를 공간을 넘어서 복제하는 가능성”을 가져왔고, 사회적으로 “시선을 결여한 탈장소적인 목소리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면적인 만남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관계성의 차원을 구성”하며, 현재적 차원에서 “개인적이고 쌍방향적인 전기통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정보화 속에서 다양한 뉴미디어가 가져올 사회와 미디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시사”한다. 요시미 순야 · 와카바야시 미키오 · 미즈코시 신(2005), 오석철 · 황조희 역, 『전화의 발견』, 커뮤니케이션북스, pp. 6-9.

인 교섭과 대화에 이르기 전에 선행된다.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목소리의 전달을 통해 신체적으로 가깝다는 느낌이 형성되고 주고받는 말의 내용과 정서적 반응에 따라 형성되는 공감과 단절의 정도가 상이하다.<sup>18)</sup> 그런데 먼저 자기를 표현해야 하고, 타인이 이를 확인해 줌으로써 관계를 맺게 되는 전화를 통한 대화 방식은 앞서 설명한 이청준이 규정한 ‘관계적 언어’의 속성과 굉장히 유사하다.

하지만 전화는 타인과의 소통의 차원을 열어젖히는 매개이지만 한편으로 그 관계에서 진정성을 소거할 위험을 항상 내재한다. 전화를 건 발신자가 타인의 목소리를 흉내 내거나 거짓을 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발화된 말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하는 전화의 대화 상황은 수신자가 대화 과정에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발신자의 언어가 거짓이 아니어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이는 전화를 통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핵심적 요소는 수화기 너머로 주고받는 ‘언어’(비언어적 표현 포함)임을 알게 한다. 또한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때는 상황적 맥락에 따라 발화된 언어의 내용과 다르거나 문자적 의미를 초과하는 뜻이 전달될 수 있는 반면, 전화를 통한 대화는 주고받는 내용에 의존하여 발화 상황과 맥락이 역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대화 상황이 흥미로운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발화에 함축된 ‘행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발화 상황에 얽힌 다양한 맥락들을 제한적으로 이해하거나 심지어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다. 발화 자체가 아닌 외부적 맥락들이 의미 이해에 간섭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거나, 거짓된 발화가 거짓된 맥락을 창출하여 거짓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행위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일컬어 오스틴이 말한 수행적 발화(performative utterance)에서 ‘발화 내 행위’가 역전된 상황으로 의미화하고 있는 한 연구자의 지적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져준다.<sup>19)</sup> 나아가 이는 이청준 문학에서 진실

18) 요시미 슌야·와카바야시 미키오·미즈코시 신(2005), pp. 79-83.

19) 『전화의 발견』의 저자가 말한 이와 같은 속성은 일반적인 전화가 아니라 ‘전언다

이 수행적 과정을 거쳐 구축된다는 선행 연구를 상기할 때 더욱 의미심장하다.<sup>20)</sup> 수행적 과정을 거쳐 언어의 힘을 확보함으로써 긍정적 의미 부여를 가능케 하는 언어관이 지닌 의미를 역으로 성찰해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화’는 언어와 행위, 또는 언어와 삶의 진실 사이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침예한 탐구를 보인 이청준의 언어관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게 하는 제재이기도 하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이청준의 언어 의식과 전화의 속성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서 언어에 관한 이청준의 침예한 문제의식의 한 단면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 특히 전화를 중심으로 한 ‘관계적 언어’에 대한 탐구 과정에서 생겨나는 잉여 지점들, 그리고 ‘존재적 언어’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전화를 받는 행위가 중요하게 그려지면서 작품의 주제의식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소설이라 할 수 있는 「떠도는 말들」(1973)과 「여름의 추상」(1982)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양자는 모두 ‘관계적 언어’와 ‘존재적 언어’의 관계를 전화를 사이에 놓고 살펴보고 있는 소설이다. 나아가 통시적인 변화에 따라 소설 속 전화를 형상화하는 방식의 차이를 이청준의 언어에 대한 탐구의 향방과 나란히 놓고 살펴볼

---

이얼(약속이나 용건 전달을 목적으로 미리 정해둔 코드번호로 연락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서비스, p. 117)이라는 특수한 의사소통 상황을 분석하면서 언급한 내용이다. 저자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의명적 관계 속에서 교섭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전인공간 내 대화 양상이 보여주는 여러 특징 중에서 수행적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요시미 순야·와카바야시 미키오·미즈코시 신(2005), p. 125).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전화오접 사례나 장난 전화의 사례, 현실의 만남 이전의 전화로 만나는 등의 예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 일반적인 전화에서도 이와 같은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행성’과 관련된 내용은 오스틴의 다음의 책을 참조(J. L. 오스틴(1992), 김영진 역, 『말과 행위』, 서광사, pp. 27-45).

- 20) 이청준의 소설에서 수행적 발화는 억압을 가하는 자와 이를 당하는 자, 서술자와 인물의 목소리, 작가와 독자 등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의미로 나타난다(김우영(2015), pp. 179-183; 이수형(2001), 「언어의 정치학과 문학의 수행성: 1960-70년대 이청준 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3, 상허학회; 허선에(2017), 「계몽된 사회와 언어 — 진실의 (불)가능성」, 『한국현대문학연구』 52, 한국현대문학회).

것이다. 이를 통해 작가의 언어의식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3. 타자의 언어에 의존하는 대화, 표류하는 말들

「떠도는 말들」(『세대』, 1973. 2)은 이청준이 본격적으로 ‘관계적 언어’ 질서의 기능을 반성적으로 탐구한 「언어사회학 서설」 연작의 첫 문을 여는 소설이다. 전술하였듯 이 소설은 사건의 발달과 전개, 결말에 이르기까지 ‘전화’가 중심 소재이자 사건의 핵심을 이룬다. 또한 전화를 통한 대화가 필요나 용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친교를 위한 매개로 기능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선행 연구에서 이 소설은 주로 이어지는 연작소설과 함께 다루어졌고, 서사의 주축이 되는 전화 오접(誤接)의 반복은 존재와 진실과 분리된 ‘타락한 언어’가 넘쳐나는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되었다.<sup>21)</sup> 윤지옥이 최종적으로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여자의 말을 ‘정처 없는 말’이자 ‘말들의 유령’이라고 간주하는 장면은 이 같은 해석의 타당성을 방증한다. 그러나 이때 지옥의 이 같은 진단, 즉 전화의 말이 라디오와 광고의 말과 같다고 보는 판단이 사건에 따른 인물의 인식 변화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 대목이 소설의 핵심 주제를 드러냄은 부인할 수 없으나, 지옥이 한 여성과 네 번의 통화를 하고,<sup>22)</sup>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가 결코 균일하지 않다

21) 김우영(2015), pp. 42-43; 마희정(2003), 「이청준의 『언어사회학서설』 연구」, 『개신어문연구』 20, 개신어문학회, pp. 595-599; 유철상(2001), 「복수와 해방의 변증법적 화해: 이청준의 「언어사회학 서설」 연작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16, 현대문학이론학회, pp. 201-202; 최창현(2012), 「말의 성찰을 통한 삶의 방식과 그 의미」, 『현대소설연구』 49, 한국현대소설학회, p. 462; 허신애(2017), pp. 122-123.

22) 소설 속에서 지옥이 전화를 받는 장면은 총 여섯 번 등장한다. 이때 네 번은 동일한 여성, 한 번은 어떤 사내, 또 한 번은 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린다는 점에서 지옥은 발신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

는 사실은 주의를 요한다. 지옥이 여자와의 통화에서 느꼈던 감정과 인식의 진폭은 상당하며, 전화와 라디오와 광고의 언어가 모두 같다는 판단은 더 이상 여자와 전화 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 이후에 등장한다. 「떠도는 말들」 속 ‘전화의 언어’는 시종일관 타락의 온상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서 ‘타락한 언어’의 테두리에 분류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화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옥의 인식 변화는 다소 관념적으로 보이는 ‘타락한 언어’의 정체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지옥과 여자의 전화 통화가 지속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수신자인 지옥이 그녀와의 교섭을 허용하고 점차 능동적으로 대화에 참여했기 때문이다.<sup>23)</sup> 이것이 그들의 대화가 처음부터 일방적 성격을 띠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 지옥이 처음에는 라디오와 광고의 언어와는 다르게 전화의 언어를 이해했음은 알게 한다. 기실 지옥은 처음부터 오점과 혼선에도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반가움을 표하는데, 이러한 반응은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은 심리가 투사된 것이 아니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당대 소통의 도구로 관심이 모였던 전화를 중심으로 ‘관계적 언어’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 작가의 문제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옥은 특정한 발신자에게 걸려올 전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지옥은 ‘누군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에게 해주는 ‘말’을 기다린다. 이와 같은 지옥의 면모는 이청준이 ‘관계적 언어’라 칭한 것, 타자의 말을 통해 자기를 확인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언어는 ‘자족적인 나’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상기할 때 더욱 흥미롭다. 처음 지옥은

23) 이는 여자가 지옥을 잘 안다는 말을 의심하면서도, 진실과 거짓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x748번’으로 전화를 걸지 않는 대목을 통해서도 추정 가능하다. 지옥은 이 방법의 유효성을 잘 알면서도 이를 실행하기를 거듭 유예하면서 여자와의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한다(이청준(2011), 「떠도는 말들」, 『가면의 꿈 (전집 7)』, 문학과 지성사, pp. 284-311). 이하 해당 작품의 인용은 본문에 해당 페이지만 표기하는 방식을 취한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말’을 긍정하고, 그 ‘말’을 통해 관계성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 이는 지옥이 전화를 일방적 전달을 속성으로 하는 라디오와 신문 매체와는 다른 결을 지니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전화의 그와 같은 속성을 간파하지 못한 순진한 기대 심리를 보이고 있음을 알게 한다.

나아가 주목할 점은 지옥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여자에게 점차 ‘특정한 형상’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옥은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스무 살 내외의 젊은 여성이라는 생각을 의심하지 않고,<sup>24)</sup> 그녀의 친밀한 ‘말투’를 통해 자신을 잘 안다는 여자의 ‘말’을 신뢰하게 된다. 여자가 목소리와 어투를 전화 밖 세계의 실제 모습과 다르게 흉내 낼지도 모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의 현전(現前)은 발신자인 여성의 언어를 전적으로 신뢰하게끔 하며, 지옥은 어느새 전화를 매개로만 존재하는 전화 밖 인물과는 ‘다른’ 리얼리티를 가진 인물을 대화 상대자로 상정해 버린다. 이렇듯 지옥이 여자를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친밀한 존재로 인식하는 과정은 철저히 ‘전화의 속성’에 상응하여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좁혀진 이들의 거리와 여자를 향한 지옥의 상상은 두 차례 시도한 대면적 만남이 실패하면서 깨어지게 된다. 그때야 비로소 지옥은 지금까지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던 대화 상대가 사실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고, 그녀의 말들 전부가 ‘일방적으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대중매체 속 언어’와 다름없다고 여기게 된다.

24)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으로 지옥이 여자가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병원에 찾아가서 그녀를 찾는 장면을 들 수 있다. 지옥은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없으나 연령대만을 확신을 갖고서 병실을 문의한다. 이는 지옥이 자신이 ‘추정한’ 여자의 나이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말을 하다 보니 그는 정말로 그 아가씨가 꿈추었음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늘 그 아가씨는 정말로 자기에게서 흔적도 없이 죽어버린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그것은 벌써 병원에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했다. ... (중략) ... 애초부터 그 아가씨는 그런 식으로 제풀에 죽어갈 작정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아가씨는 왜 병원을 샀는가. 그것은 지옥으로서도 알 수가 없었다. 아마 병원은 그녀의 말에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지옥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곳이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일단 상당한 효험을 발휘한 셈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옥은 굳이 거기까지는 생각하기가 싫었다. 확실한 것은 다만 그 거품처럼 허망한 말들 속에서 어렴풋이나마 어떤 모습을 드러내려 했던 한 아가씨가 이젠 좋은 실든 지옥에게서 깨끗이 죽어 없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애초부터 어떤 정처 없는 말의 유령에 불과했으며 거기에 흘러 든 지옥이 이제 다시 그 유령의 마술에서 겨우 제정신을 되찾아내게 된 사실이었다.(pp. 319-320, 밑줄: 인용자)

지옥은 여자를 만나러 간 병원에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녀의 말이 “애초부터 어떤 정처 없는 말의 유령”에 불과했으며, 지금까지 거기에 흘렀다고 생각한다. 전화를 매개로 한 소통은 타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지옥은 그녀와 대화할 때는 거짓말의 가능성을 떠올리지 못하다가 병원에서 돌아오면서 이를 깨닫게 된다. 그녀가 어떤 존재이며 어디에 있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 전부 다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가 무심코 그녀를 꿈추인 아가씨라고 말하고 나니, 지옥은 정말 그런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지옥이 다른 모습으로 그녀를 떠올리거나 설명하려고 해도 그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은 지옥에 의해 그녀의 모습으로 상상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 중의 하나일 테니 말이다. 그렇기에 전화 통화‘만’으로 만나게 된 발신자는 지옥에게 영원한 ‘미지의 타자’일 수밖에 없다.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

보로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타자의 언어로 자신을 맞추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지옥이 그녀를 완전히 죽은 존재로 받아들인 것은 더 이상 그녀(타자)가 제공하는 정보(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에 의존하는 관계 형성 노력을 멈추겠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전화를 매개한 이들의 대화에서 지옥에게 그녀는 처음부터 확실한 정체성을 지니지 않고서 자신을 속인 존재이나, 앞서 살펴보았듯 지옥 또한 일방적으로 그녀의 정체성을 구성하였다. 발신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신자가 발신자의 언어를 취합하여 그의 존재를 상상하더라도, 수신자의 바람에 따라 상대의 정체성을 구성하더라도, 이는 모두 발신자의 실제 ‘존재성’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것이 바로 전화로 맺는 관계성의 근본적 한계인 것이다. 처음부터 여자는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 하는 지옥에게 “마치 누구라도 지옥이 바라는 여자가 되어주겠다는 듯한 투”로 “제가 누구냐구요? 제가 누구라면 좋으시겠어요?”(pp. 285- 286)라고 말한 바 있다. 수신자와 발신자 모두 서로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폐기하거나 재구성하는 결과에 이르는 이와 같은 상황은 대화하는 두 대상자의 존재성이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맺어진 관계성과 같다. 이처럼 이청준은 전화가 가진 속성을 토대로 ‘관계적 언어’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존재적 언어’가 자리 잡을 장소를 잃어버리게 된 현대 사회의 단면을 목도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옥이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 전화 통화에 참여하지 않고 이중 삼중의 혼선 속에서 미지의 타자들이 서로 교환하는 거짓 말을 ‘듣기만’ 하는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서로의 존재성이 망각된 상태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존재가 무색한 끊임없이 희롱하는 말들은 전화라는 매체 속에서 존재의 언어를 잃어버린 채 표류하게 된다. 그리고 지옥이 이 말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리를 두고 듣기만 하는 자세는 타자의 언어에 의존적이었던 자신의 모습과 헤어짐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여자와의 반복된 통화 속에서 지옥이 발견한 것은 ‘타락한 언어’만이 아니다. 자기 존재의 언어를 잃고 타자의 언어를 전적으로 수용할 때, 그 ‘타락한 언어’ 사이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수화기를 들고 있지만 이들의 말을 듣기만 하고서 대화에 끼지 않는 지옥의 모습에는 전화를 통한 소통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함축된 것이다. 이처럼 「떠도는 말들」은 전화가 지닌 특수한 관계성의 면면을 통해 ‘존재적 언어’와 ‘관계적 언어’의 분리가 가져오는 파국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하지만 지옥의 능동적 행위, 즉 발신자의 언어를 해석하며 이를 행동으로 현실화하는 과정은 ‘진실’을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이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성찰적 태도’를 견지하게끔 유도한다. 여자와의 통화에서 발화에 내재된 행위가 기실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사실은, 발화에 의존한 맥락과 행위를 지옥이 거듭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얻어진 결론인 것이다. 따라서 지옥이 전화에 대한 불신은 작가의 ‘관계적 언어’에 대한 불신과 맞닿아 있지만, ‘존재적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작가의 논설을 상회하여 좀 더 풍부한 의미를 던져준다. 발신자와 수신자의 쌍방향의 소통이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은, 두 대화 주체 모두가 자신의 존재의 자율성을 견지할 때 이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윤지옥의 인식의 추이에서 우리는 ‘존재적 언어’와 ‘관계적 언어’가 상호 침투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청준은 타자의존적인 요소가 늘어난 현실에서 ‘관계적 언어’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양상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한 듯하다. 이 소설에 나타나는 윤지옥의 절망에는, ‘살아 있는 말’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상황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전화라는 미디어가 소통의 매개가 되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비관이 함께 담겨 있다. 이러한 비관은 이후 이청준 소설에서 전화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여지를 보여주는 소재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방증된다.

## 4. 규범화된 언어에 대한 불신과 ‘존재적 언어’의 아포리아

이청준은 「언어사회학서설」과 「남도사람」 연작을 통해 말과 소리에 대한 치열한 탐구를 보여줬고, 두 계열의 연작은 「다시 태어나는 말」(『한국문학』, 1981. 5)이라는 하나의 결편으로 합류하면서 존재의 근원을 상실하지 않는 ‘살아있는 말’을 찾아 헤매는 긴 여정은 일단락을 짓게 된다.<sup>25)</sup> 「떠도는 말들」에서 언어의 타락을 직시한 윤지옥은 이어지는 소설에서 “사람들 사이에 아직도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말, 믿음을 지니고 살아 있는 말”<sup>26)</sup>을 찾기를 염원하지만 모두 실패하며, 「다시 태어난 말」에 이르러서야 그 단서를 만나게 된다. 참다운 말을 증명하는 형식과 규범을 찾으려 했던 윤지옥은 오히려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말이야말로 자신이 찾고자 했던 ‘말의 진실’임을 깨닫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참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다양스럽고 은밀해”(p. 260)진 말, 균일하게 정리할 수 없는 삶 자체의 모습처럼 수없이 모습을 변형하며 ‘다시 태어나는’ 말을 이해하는 ‘수신자의 태도’이다. 기표와 기의가 고정된 형태의 언어를 통하지 않는 소통, 소리와 침묵을 통한 이들의 소통은 수신자의 능동적 이해를 거쳐 ‘충만한 의미망’을 형성한다.<sup>27)</sup>

「다시 태어나는 말」이 발표된 지 약 일 년 후 발표된 「여름의 추상」(『한국문학』, 1982. 4~5)은 이 같은 작가의 언어에 대한 탐구를 특히 삶(존재)의 차원에서 풀어내고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의 서사의 처음과 끝은 ‘나’

25) 이와 같은 작가의 견해는 단행본 『잃어버린 말을 찾아서』(문학과지성사, 1981)의 작가의 말(「책을 꾸미면서」)과 산문 「존재적 언어와 관계적 언어 사이에서」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26) 이청준(2017), 「다시 태어나는 말」, 『다시 태어나는 말 (전집 16)』, 문학과지성사, p. 259. 이하 「다시 태어나는 말」에 대한 인용은 별도의 주석 없기 면수만 표기한다.

27) 허선애에 의해 적절히 지적되었듯, 「다시 태어나는 말」에서 지옥이 만난 ‘용서’와 ‘구원’의 언어라는 내용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소통과 이해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허선애(2017), pp. 138-149.

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이라는 장소에서 전개되며, 그 가운데는 마산, 해남, 장흥 등 남도 곳곳을 이동하면서 펼쳐진다. ‘관계적 언어’와 ‘존재적 언어’에 대한 탐구가 도화와 남도(시골)의 언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언어를 탐구하는 일련의 소설과 나란히 놓고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어에 대한 탐구를 보이는 일련의 소설에 나타나는 소리에 대한 관심이 작가의 고향인 남도의 삶을 마주하는 과정과 궤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름의 추상」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작가를 상기하는 ‘나’를 중심으로 그 노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나’가 고향에 다녀오는 여정을 일기 형식을 빌려 전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이 소설은 작가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자전성이 짙다.<sup>28)</sup> 구체적인 시간적 표지가 생략된 일기의 나열은 언뜻 서사 전개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아 보이게 한다. 그러나 고향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시 서울로 회귀했을 때 나타나는 인물의 뚜렷한 인식 변화는, 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향의 이미지를 파편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로의 서사라는 틀에서 해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가령, ‘나’는 남도에서 머물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사투리에서 표준어와 구분되는 ‘사실적인 지시성’을 넘어선 ‘말의 자유’와 그에 상응하는 ‘삶에 대한 사랑’의 충만함을 느낀다.<sup>29)</sup> 이 같은 발견은 고향에 오

28) 김남혁(2015), 『파라텍스트 이청준』, 케포이북스, pp. 146-147; 이윤옥(2013), 「자료: 텍스트의 변모와 상호 관계」, 이청준, 『비화밀교 (전집 18)』, 문학과지성사, pp. 430-431.

29) 이와 같은 ‘나’의 견해가 가장 많은 자유를 내포한 말인 남도 소리와의 대비를 통해서 설명된다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 ‘나’가 사투리를 말과 소리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평하는 것은 그 이전의 창작을 통해 ‘잃어버린 말’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가능성을 ‘남도 소리’에서 찾았던 과정이 선행했기 때문에 가능하다(이청준(2013), 「여름의 추상」, 『비화밀교 (전집 18)』, 문학과지성사, pp. 137-142). 이하 이 소설의 인용은 별도의 주석 없이 본문에 면수만 표기한다. 한편, 이러한 대목에 주목하여 작가의 음성과 소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했던 김우영의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기 전의 ‘나’와 다시 서울로 돌아간 ‘나’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큰 낙차를 가져온다. 흥미로운 것은 소설의 끝에서 ‘나’의 변화된 인식을 보여주는 표지가 ‘전화’와 ‘편지’라는 두 의사소통의 매체를 선택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 선택의 의미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이 두 매체가 서사 전반에 걸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가 서울의 집을 비우고 어디론가 떠나는 표면적 이유는 잡지사의 취재기자를 의미하는 ‘카메라’를 피해서이다. ‘나’는 카메라가 대상을 일방적으로 관찰하거나 포착하는 시선을 강압적으로 느낀다. 이 같은 카메라의 집요한 시선은 이를 피해 고향으로 내려간 ‘나’를 계속 쫓아오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전화’이다.

내가 마산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우선 당장엔 전화질 때문이었다. 그 은밀스런 감시자, 어느 곳으로도 사람을 숨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수색자, 그의 저주받을 전화질 때문이었다. 그것은 끝내 마산까지 나를 찾아낸 격이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은 그 마산의 동서네를 찾아낸 경위였다. 어떻게 내게 마산 동서네가 있는 것을 알았을까. 그리고 무슨 수로 그곳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것일까..... 해남엘 올 때까지 나는 도대체 그 경위를 알 수가 없었다. 한데 해남엘 도착하여 큰동서네를 만나보니 그 비밀의 해답이 풀렸다.(p. 104, 밑줄: 인용자)

마산을 떠나 해남으로 온 이유는 어찌된 영문인지 취재기자가 마산에까지 전화를 걸어 ‘나’의 소재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를 피해 해남에 왔더니 자신을 찾는 전화가 해남의 큰동서네에 먼저 걸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때 ‘나’는 전화를 직접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발신자의 메시지를 승인하지 않았고, 그 점에서 발신자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은 것이

나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느닷없이 울리는 이 요란한 전화벨 소리를 대하는 인물의 모습은 진절머리가 날 지경으로 나타난다. “은밀스런 감시자”, “어느 곳으로도 사람을 숨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수색자”라는 표현은 그 같은 인물의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에서 최초의 주도권은 전화를 거는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대화를 지속하게 하는 것은 쌍방향적인 소통에 의해서다. 그러나 「여름의 추상」에 나타난 전화 통화에는 수신자의 자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직 발신자의 일방적인 전화 거는 행위만이 강조된다. 회선이 연결되어 있다면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발신자가 원하는 상대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질과 맞물려 인물의 두려움은 더욱 배가 된다.

그런데 이처럼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받지 않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계속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는 상황은 당시 전화 보급률이 증대되었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아직 한 가구에 한 대의 전화를 소유할 정도로 편재되진 않았지만, 산간벽촌에도 ‘공동 전화’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부정적인 변화로 느껴진다.<sup>30)</sup> 시골마을에 전화를 걸어 막내누님의 죽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시골에 가서 긴 시간을 보내듯, ‘나’는 소통의 매개로서의 전화의 기능을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이 대목에서 주의를 끄는 것은 ‘나’의 이동 경로와 ‘전화’가 걸려오는 순서가 반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 경위를 해남 큰동서네에 와서 알게 된다. 마산에 걸려온 전화는 큰 동서가 카메라의 집요한 시선을 피해 ‘나’를 숨겨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큰동서는

30) “빌어먹을 전화…… 전화질을 저주하다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일이 있었다. 저주스럽거나 말거나 그 전화는 나라 안 방방곡곡 어디에나 있었다. 근래에 와서는 아무리 먼 산간벽촌에라도 공동 전화가 들어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쪽 시골 마을에도 공동 전화가 들어가 있을 게 분명했다. 시골 마을에도 전화가…… 일부러 생각을 비켜왔는지도 모르지만, 그게 이제사 생각난 것이 이상스런 정도였다. 그걸 알고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는 것도 죄악이었다.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리고 시골로 장거리 전화를 신청했다.”(pp. 106-107).

‘나’의 소재를 모른다고 해도, 전화를 끊지 않고 집요하게 시골에 관심을 두는 그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녀가 생각했을 때 가지 않았을 것 같은 마산의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이 같은 큰동서의 행동에 대해 ‘나’는 개인적인 기지의 소산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심상치 않은 심인(尋人) 소동엔 사람부터 우선 숨겨주고 보는 지혜”(pp. 104-105)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큰동서의 전화 받기는 대화상대인 발신자의 일방성을 어느 정도는 무력화한다. 이와 같은 전화 받기가 지닌 의미는 마산의 처형을 통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저 악착스러운……!

나는 계속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안방 쪽의 목소리만 쫓는다. 안방에선 아직도 처형의 높은 목소리가 한동안이나 더 계속 되어나간다. 마치 처형은 지금 서울이 아닌 문간방의 내게다 말을 하고 있듯이. 또는 한마디 한마디를 내게 미리 의논이라도 하듯이.

“그 양반 고향 주소요? 글썄요…… 장흥 어디라는 건 들었지만, 면이나 마을까진 알 수가 없는데요 …………… 네, 여긴 주소가 없어요 …………… 가본 일도 없었구요. 그런데 …………… 그런데 왜 그러시죠? …………… 무슨 일로 그러시냐니까요 …………… 네, 알겠어요. 다음에라도 혹 이 쪽으로 연락 있으면 그렇게 전해드리죠…………… 네, 그럼 수고하세요.”

처형은 마침내 통화를 끝냈다. 그리고 나선 이내 내 쪽으로 건너 왔다. 그러고서도 별로 긴 말을 하지 않는다.

“여기 계신 줄 알고 있는 것 같던데요.”

통화를 들었을 테니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는 말투다.

(pp. 101-102)

인용된 부분에서 실제 통화를 나누는 이는 취재기자와 처형이다. 그러나 안방과 문간방이라는 분리된 장소에 있으면서 직접적인 말로 교섭하

고 있지 않은 처형과 ‘나’가 좀 더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려진다. “마치 처형은 지금 서울이 아닌 문간방의 내게다 말을 하고 있듯이. 또는 한마디 한마디를 내게 미리 의논이라도 하듯이”라는 대목은 이와 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반적인 전화 통화를 떠올릴 때 이러한 대화 상황은 더욱 이채를 띤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와 이야기를 나눔에도 전화가 대면적인 만남과 유사하게 느껴지는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마치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감각을 주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통화 중에는 주변 사람들의 개입이 배제되거나 최소화된 것처럼 두 사람만의 이야기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sup>31)</sup> 통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대화 상대방과 연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대화를 나누지 않는 이와 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은 전화를 통한 소통의 가능성에 대한 작가의 불신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처형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에게 그와 관련된 내용을 묻지 않는다. 상대방의 사연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이러한 태도가 언어를 초월한 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대조적으로 그려지는 두 대화의 양상은 기표와 기의가 일치하는 언어의 대안으로 ‘자유와 사랑이 충만하게 깃든 말’을 긍정하는 작가의 태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전화 통화가 언어의 지시성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다면, 처형과 ‘나’의 대화는 마치 ‘침묵의 언어’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달리 말하자면, 전자가 상대방의 발화에 의존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구축해나간다면, 후자는 ‘직접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깊이 인정하는 내면적 사유에 기반을 둔다.

한편, 「여름의 추상」은 「떠도는 말들」과 비교할 때 더욱 흥미롭게 읽힌다. 「떠도는 말들」에서 정처(定處) 없이 표류하는 대상이 「말」이라면, 「여름의 추상」에서 고향인 남도의 곳곳을 다니는 것은 ‘나’이다. 「떠도는

31) 요시미 슌야·와카바야시 미키오·미즈코시 신(2005), p. 80.

말」에서 ‘말」이 정체를 잃어버리고 결국 타락의 길로 좌초되는 반면, 「여름의 추상」에서 ‘나」는 자기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자기의 실재를 증명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낙차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나」가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이유는 카메라의 시선을 피하고자 하는 사정과 더불어 고향의 누군가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담긴 전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비원의 실수로 전보가 분실된 상황에서, ‘나」는 죽음에 이른 이와 전보를 보낸 이의 정체를 모른 채, 두 의문을 가슴에 품고 길을 나서게 된다. 전자는 막내 누님의 소식을 전해 들어 해소됐지만, 전보를 보낸 이는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다. 그런데 다시 서울로 올라왔을 때 나는 또 다시 발신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전보를 받고, 거기에는 시골에서 자신이 죽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전언을 듣는다. 이처럼 발신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두 전보는 수신인인 ‘나」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삶의 자세를 질문하고 인식 변화를 추동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첫 번째 전보가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현 상황을 돌아보고서, ‘정치 있는 삶」과 ‘나그네의 삶」이라는 자신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바라게끔 하는 감정을 촉발시키게 하는 계기가 된다 면,<sup>32)</sup> 두 번째 전보 내용을 접한 ‘나」는 마치 자신이 ‘유령」이 된 것 같다는 기분에 사로잡힌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두 번째 전보를 받게 된 상황이 ‘나」가 남도를 떠나 서울로 돌아오면서 나타난 일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남도에서 말의 자유가 흠뻑 담긴 언어가 현실에 구현되

32) ‘나」가 ‘정치」를 찾게 된 것은 우륵 선생의 강권으로 집터를 보면서부터인데, 이때 ‘나」는 고향인 장흥에서도 자신이 ‘떠돌았던」 이유가 ‘사랑을 다 하고 용서를 빌어 본 땅」이 없기 때문임을 깨닫는다. 그 후 ‘나」는 자기의 소재를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도회지 사람들이 베어가 뿌리만 남은 고목나무를 보면서 비록 씩어갈지라도 생명의 뿌리는 뽑힐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나」가 그 고목을 보면서 ‘나의 삶과 시간을 포함한 이 지상의 모든 것의 흐름」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서 서울로 돌아가는 ‘나」는 “어느 곳이나 자신의 신전을 지을 수 없는 대신 자신의 신전을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p. 223)인 ‘나그네」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의 쫓기는 삶」에 대해 생각한다.

는 광경을 목도했고, 정치 마련의 욕망을 갖기도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나그네’의 삶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그럼에도 결국 ‘나’는 서울로 돌아온다. 이는 서울에서의 삶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나’에게 있어 남도에서의 이상적 언어와 삶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을 상기한다.

그렇기에 ‘나’는 서울로 돌아와 다시 자신의 실존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 ‘나’의 앞에는 이를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차례로 나타난다. 우선 ‘나’는 어제 시골을 떠나왔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존재를 확인받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심을 하지 못한다. 그러고서 ‘나’가 발견한 두 방법이 ‘전화’와 ‘편지’라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이는 ‘나’라는 한 개인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타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하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방법을 찾아본다. 나의 실재를 확인하고 증명받을 방법을.

그런데 그때.

나는 참으로 뜻밖의 곳에서 그것을 발견한다.

느닷없이 전화벨이 신호를 울려온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한 번, 두 번, 세 번.

바로 그것이다. 전화를 받으면 그게 증명될 수 있었다. 저쪽은 분명 살아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에게 나의 목소리를 전한다…… 그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냉큼 수화기를 들고 싶다. 하지만 역시 아직 그럴 수 없는 일.

나는 간신히 충동을 억누른다. 그 대신 내가 곧 해야 할 일이 생각난다. 지체 없이 편지를 한 통 써야 할 것 같다. 나를 찾는 전화벨 소리에 비로소 그 일이 생각난 것이지만, 그것도 또한 나의 실재를 증명할 좋은 방법이다.(pp. 228-229)

‘나’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전화 받기’와 ‘편지 쓰기’ 중에서 후자를 선택한다. 수화기를 들어 ‘목소리’를 듣고 전하는 방법은 발신자와 수신자라는 두 사람의 대화 상대를 확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나’가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살아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방법을 택하고 싶은 충동을 애써 참는다. 서사 내에서 전화가 타자의 일방적인 승인만이 허용되는 언어를 상징한다는 점을 떠올릴 때, 전화를 받는 행위에는 ‘정신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증명할 수 없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그렇다면 ‘나’가 선택한 편지 쓰기의 방식은 어떠한 의미를 띠는 것일까. 지금까지 「여름의 추상」의 서사 전개 과정에서 편지 쓰는 행위는 전화와 달리 ‘나’의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 처음 ‘나’가 ‘김 가’에게 편지를 쓰코자 할 때, 그 내용은 진심과 거리가 멀고 과잉된 감정으로 점철된다. 하지만 정처를 구하리라는 마음가짐을 먹은 후 다시 편지를 쓰게 됐을 때는 거짓이 아닌 자신의 사연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펼쳐지는 것을 느낀다. 이처럼 편지 쓰기는 ‘나’가 쫓기고 있거나 표류한다고 느끼는 상황, 자기의 소재를 찾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나’의 존재를 증명하게 해 주는 편지 쓰기는 이전의 두 방식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래 서둘러 편지를 한 통 서 보내도록 하자. 김가에게든지 유가에게든지 편한 대로 누구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나는 비로소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 손발을 씻는다.

그리고 다시 서재로 돌아와 원고지를 꺼내놓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 ×가야, 참 오랜만이구나.

서울을 떠난 지도 두 달이 가까운데 이제사 겨우 소식 전하는구

나.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느라 경황이 없어 그리된 게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다시 요란스럽게 울어대기 시작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전화질은 참으로 집요하고 끈질기다.  
나는 이제 그 소리엔 상관을 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편지의 사연을 계속해나간다.  
-×가야, 내게 그런 사정이 있어 이 편지는 아마 서울에서 부치게 하도록 하겠지만, 여긴 지금 겉봉에 씌어졌듯이 대전시 근방의 친구 네 농장이다…… (pp. 229-230)

고향에서 ‘나’가 특정한 수신자를 향해 편지를 썼다면, 여기서 ‘나’는 “김가에게든지 유가에게든지 편한 대로 누구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편지를 쓰면 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편지가 ‘×가’를 향한다는 것은 곧 편지의 내용이 두 사람 또는 다른 누가 수신인이 되어도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또 편지 내용에서 특기할 점은 현재 ‘나’가 서울의 집에서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대전에 있다고 서술한다는 사실이다. 다소 이해되기 어려운 이러한 대목은 ‘나’가 바라는 ‘나그네’의 삶을 상기할 때 그 의미를 추단할 수 있다. 서울, 대전 어디든 집(정처)을 정하지 않고 떠도는 모습은 「다시 태어나는 말」에서 볼 수 있는 문자 언어를 초과한 말, 형식의 변신을 통해 거듭 ‘다시’ 태어나는 ‘말’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처럼 이전의 소설들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여름의 추상」의 서사 전개는 자전적 성격을 넘어선 주제를 전달한다. 전보를 통한 ‘나’의 상징적 죽음은 그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의미화된다. 그리고 편지 쓰기를 통해 확인되고 증명 받은 ‘나’의 실재, ‘나’의 삶의 자유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편지를 받은, 누군지 알지 못할 수신자의 몫이다.

나아가 이 소설이 문제적인 것은 ‘나’가 도달하게 된 ‘존재적 언어’의 한 단면이 ‘문자 언어’를 통해 쓰인 편지로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태어나는 말」에서 윤지옥은 말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기표와 기의가 일치하는 문자 언어를 초과한 소리와 침묵에서 발견한다. 반면, 「여름의 추상」에서는 그 가능성이 문자를 통해 실험되고 있다. 이 청준의 표현을 빌려 다시 말하자면, ‘존재적 언어’를 중심으로 한 ‘관계적 언어’와의 상호 작용이 전자는 ‘소리’를 통해 후자는 ‘문자’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소리와 문자로 대별되는 듯한 양자의 속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다시 태어나는 말」의 윤지옥이 삶의 존재성에 가닿는 말에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내의 소리를 통해 짐작했듯, 「여름의 추상」의 ‘나’의 편지는 문면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일반적이고 규범적인 독법으로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표면적으로 가시화되는 소리나 문자가 아니라 ‘존재적 언어’에 속한 삶과 존재로, 그것은 직접적 표현을 넘어선 ‘의미’를 발견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이 두 편의 소설은 모두 근대적 규범 언어와 결이 다른 속성의 ‘다시 태어나는 말(소리와 문자)’을 알아봐 주고 이해하는 수신자(타자)의 존재를 상정하면서 마무리된다.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말」과 「여름의 추상」을 나란히 놓고 살펴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말’이 자유로우면서도 타락하지 않고 진실에 이를 수 있는 것은 표현된 언어 뒤에 존재하는 발화자의 삶(존재)을 간취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sup>33)</sup>

하지만 결국 문자를 통해 구현되는 ‘편지’를 통한 소통에서 수신자와

33) 「다시 태어나는 말」이 윤지옥이라는 허구적 인물을 통해 남도의 소리를 통해 소통의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이 소설은 문자를 통해 소통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목은 「여름의 추상」의 ‘나’가 이청준을 상기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소설가로서 언어를 매개로 독자와 만날 수밖에 없는, 결국 자신의 존재성과 삶 속에 응축된 문제의식을 소설을 통해서 구현할 수밖에 없는 작가 이청준의 ‘존재 증명’의 한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누구로도 특정되지 않는 ‘×가’는 독자를, 그리고 ‘나’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밖에 진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소설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발신자의 역할은 균등하지 않다. 발신자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수신자의 몫이지만, 수신자의 그 이해가 발신자에게 유의미하게 회신되지 않을 수도 있다. 독자로도 이야기될 수 있는 수신자의 역할이 비대해지는 현상은 결국 독자가 작가의 ‘존재적 언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결된다. 나아가 ‘존재적 언어’에 대한 경도 역시 언어의 일방성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을 잠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는 인물이 언어 또는 존재의 실체를 추적해가는 양상을 「떠도는 말들」과 대비하여 살펴볼 때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떠도는 말들」에서 두 언어 질서의 조화의 모색은 결국 실패하게 되지만, 그 탐색의 과정은 어느 하나를 우위로 두고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여름의 추상」에서 ‘전화’로 대변되는 ‘관계의 언어’는 처음부터 전적으로 부정되어진 채로 나타난다. 이 소설에서 ‘전화’는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설령 작가의 의도와 어긋날지라도, 아무리 ‘존재적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두 언어질서의 대립 구도에서 하나로 경사되는 것은 폐쇄적인 소통회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는 두 언어에 대한 화합이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에서 좌초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때에 이르러 나타난 ‘관계적 언어’에 대한 작가의 과도한 불신에는, 결국 서울이라는 도회의 삶 속에서 두 언어 질서가 화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진단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양자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오직 고향의 언어와 남도 세계에서만 가능하리라는 작가의 (무)의식을 간취할 수 있다.

## 5. 결론을 대신하여

이 글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언어 의식을 ‘전화’라는 새로운 문물이자 의사소통의 수단이 소설 속에서 그려지는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화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쑥 신호가 울려 일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침입자이지만, 수신자와 발신자의 참여 방식에 따라 대면적 소통과는 다른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대화 양상을 낳게 하는 가능성을 잠재한 매체이기도 하다. 또한 소설 속에서 전화는 이청준이 직접 언급한 ‘관계적 언어’의 속성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나타난다. 전화가 형상화되는 방식,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다른 언어에 대한 탐구 등을 살펴보는 것이 ‘관계적 언어’와 ‘존재적 언어’ 양자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풍부한 질문을 이해하는 문제와 긴밀하게 결부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청준에게 ‘관계적 언어’는 현대 사회로 접어들어 나타난 물질문명과 무관하지 않고, 권력을 가진 집단에 의해 점유될 때 획일적 공리성을 띠게 되어 지배와 억압의 언어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이청준은 이 같은 ‘관계적 언어’가 다른 것으로 완전히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 언어’를 중심으로 양 질서를 하나의 삶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점에서 전화는 현대 사회의 한 미디어이지만 대화를 통한 상호소통이 가능한 매체이기에 ‘관계적 언어’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좋은 제재이다. 하지만 결국 탐구의 끝에 이청준은 진실과 정의가 존립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언어 또한 그 의미를 온전히 믿기 어렵기에 기본적으로 언어에 의존하는 성향을 띤 전화를 매개한 대화는 ‘살아있는 말’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듯하다. 소설 속 전화에 대한 불신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서술자의 시선에는 곧 지시적 규범에 따른 언어만으로는 삶과 진실을 이해하고 공명하는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이청준의 언어 인식이 결국 ‘관계적 언어’에

대한 능동성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의 언어 의식이 ‘존재와 관계’, ‘자율과 타율’, ‘도시와 고향’ 등의 이항대립적 세계관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있다. 그는 양 질서의 대립과 갈등이 화해되기를 바랐고, ‘존재적 언어’를 중심으로 한 ‘관계적 언어’의 공존을 추구했다. 하지만 이항대립의 구도는 무게 중심이 한 축으로 기울어질 때 그 균형을 잃고 위계적 관계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이청준에게서 이는 ‘관계적 언어’에 대한 불신의 심화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청준은 신문이나 방송의 광고의 유희적인 메시지가 소비를 충동한다고 비판하는데, 그 원인을 광고계의 특수한 맥락에서 찾지 않고, “우리 사회의 언어생활 일반의 결과적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이러한 판단의 기저에는 그 이전부터 반복되어 왔던 공인들의 공약, 실제 없이 약속만을 말하는 표어와 구호들이 횡행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겨난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이청준은 언어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말을 아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sup>34)</sup> 이러한 견해는 도시에서의 삶 속에서 수많은 타락한 말들의 범람을 도처에서 목격하면서 환멸에 빠졌기 때문에 생겨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가의 인식 틀에서 두 언어질서, 이곳(도시)과 저곳(고향)의 융화를 위한 모색의 여정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작가의 언어관에 대한 비판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전화를 매개로 한 소통의 가능성에 대한 포기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소설에서 전화를 통한 소통에 대한 기대는 1970년대 초반에만 해도 발견할 수 있었으나 1980년대에 이르면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격한 낙차를 보인다. 「여름의 추상」에 이르러 소설가는 전화와 같이 대중의 자리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언어로 대화를 시

34) 이 글은 1981년에 쓰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1980년대 초반의 ‘관계적 언어’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이청준(1985), 「말의 인플레이션」, 『말없음표의 속말들』, 나남, pp. 104-106).

도하려 하지 않는다. ‘관계적 언어’에 대한 이 같은 비판은 이청준의 1980년대 언어 의식과 소설가로서의 자의식을 이해할 때 중요한 문제로 보이며, 이는 추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자 료】

- 김승옥(2004), 「보통 여자」, 『강변부인 (전집 4)』, 문학동네.  
이청준(2017), 「다시 태어나는 말」, 『다시 태어나는 말 (전집 16)』, 문학과지성사.  
\_\_\_\_\_(2013), 「여름의 추상」, 『비화밀교 (전집 18)』, 문학과지성사.  
\_\_\_\_\_(2011), 「떠도는 말들」, 『가면의 꿈 (전집 7)』, 문학과지성사.  
\_\_\_\_\_(2011), 「가학성 훈련」, 『소문의 벽 (전집 4)』, 문학과지성사.  
\_\_\_\_\_(2011), 『조율사 (전집 8)』, 문학과지성사.  
\_\_\_\_\_(1985), 『말없음표의 속말들』, 나남.  
\_\_\_\_\_(1981), 『잃어버린 말을 찾아서』, 문학과지성사.

### 【논 저】

- 강준만(2009), 『전화의 역사: 전화로 읽는 한국 문화사』, 인물과사상사.  
권오룡 편(1999),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김경연(2015), 「통속의 정치학 — 1960년대 후반 김승옥 주간지 소설 재독」, 『어문론집』 62, 중앙어문학회.  
김남혁(2015), 『파라텍스트 이청준』, 케포이북스.  
김우영(2015), 「이청준 문학의 언어 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마셜 매클루언(2011), 김상호 역,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마희정(2003), 「이청준의 『언어사회학서설』 연구」, 『개신어문연구』 20, 개신어문학회.  
서희원(2018), 「부재하는 신체, 존재하는 목소리: 전화는 어떻게 소설의 서사를 변화시켰는가 — 연상섭의 「전화」, 『사랑과 죄』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75, 동악어문학회.  
안숙원(1995), 「전화 텍스트론: 박완서의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을 대상으로」, 『국어국문학』 115, 국어국문학회.  
오연옥(2013), 「현대소설에 나타난 통신매체 인식 연구 — <고향> · <전화(電話)>에 나타난 전화매체를 중심으로 —」, 『한국문학논총』 65, 한국문학회.

- 요시미 슌야(2005), 송태욱 역, 『소리의 자본주의』, 이매진.
- 요시미 슌야·와카바야시 미키오·미즈코시 신(2005), 오석철·황조희 역, 『전화의 발견』, 커뮤니케이션북스.
- 유철상(2001), 「복수와 해방의 변증법적 화해: 이청준의 「언어사회학 서설」 연작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16, 현대문학이론학회.
- 이경훈(1999), 「네트워크와 프리미엄: 염상섭의 「전화」에 대해」, 『어떤 백년, 즐거운 신생』, 하늘연못.
- 이수형(2001), 「언어의 정치학과 문학의 수행성: 1960~70년대 이청준 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3, 상허학회.
- 이승하·이충만(2011), 「한국 현대 소설에 나타난 전화를 통한 일상성 연구 —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 이정현(2014),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언어’와 ‘죽음’ 의식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존 랭쇼 오스틴(1992), 김영진 역, 『말과 행위』, 서광사.
- 최창현(2012), 「말의 성찰을 통한 삶의 방식과 그 의미」, 『현대소설연구』 49, 한국현대소설학회.
- 한순미(2006), 「이청준 소설의 언어 인식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선애(2017), 「계몽된 사회와 언어 — 진실의 (불)가능성」, 『한국현대문학연구』 52, 한국현대문학연구.

원고 접수일: 2019년 1월 10일

심사 완료일: 2019년 2월 2일

게재 확정일: 2019년 2월 8일

ABSTRACT

---

Possibility of Conversation Not Limited  
to a Fixed Language:

Focusing on the ‘Telephone’ in Lee Cheong-joon’s Novels

Lee, Haeng-mi\*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premise that the ‘telephone’ in Lee Cheong-joon’s novels is closely related to the intense inquiry of the writer on language, and not merely on the material level. The communication through the telephone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perty of ‘relational language’ defined by Lee Cheong-joon in that it requires mutual guarantee and agreement between the sender and receiver. In addition, since telephony constitutes context through the content of speech, mutual exchange has a considerable influence on leading the meaning of dialogue,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authenticity of the dialogue itself is doubtful. Also, a phone is also a medium for intensely forming intimacy and bond through intimate communication between two communicators. In this article on Lee Cheong-joon’s novels, an attempt is made to examine the aspect of representation of the properties of these telephones in parallel with the Lee’s language consciousness.

In Lee’s novels, telephoning is usually semantically related to the emo-

---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ional response and behavior of the recipient. The aspect of the representation of the telephone reflects the study on the related aspects of the ‘relational language’ and ‘existential language’ defined by Lee. “Floating Words” (1973) is a novel that reflects on the function of ‘relational language’. It shows the danger of deciding the reality by relying on the talk of the other party, and the importance of ‘existential language’ is further emphasized from these limitations. However, in the process of reaching this conclusion, the recipient interprets the caller’s words and behaves according to them. At this time, the recipient actively understands and acts on the language of the sender, and becomes the subject who introspectively search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anguage orders.

On the other hand, “Abstract of Summer” (1982) shows the whole distrust of ‘relational language’ and the inclination to ‘existential language’. In the novels of Lee, the languages that convey the full meaning came mainly from the tongues and sounds of the Namdo. This novel is characterized by being written through letter writing. The voice of the speaker who wants to read beyond the character is connected with Lee’s voice who wishes to communicate freely beyond the normative language. However, the situation in which the ‘relational language’ represented by the telephone is completely denied implies the possibility that the ‘existential language’, an axis of the binational contradiction, becomes another closed communication circuit. In addition, Lee’s excessive distrust of ‘relational language’ is also projected that it is impossible to combine two language orders in the life of the city of Seoul.

